

조선 후기 부산에서의 표류일본인 접대*

- 『朝鮮漂流日記』(1819)를 중심으로 -

심민정**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표류일본인이 체류한 부산 지역 포구
- III. 일공 및 잡물 지급
- IV. 연향 접대
- V. 나가며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조선후기 야스다처럼 직급이 있는 일본인이 표착하였을 경우 부산에서 어떻게 대우하였는지 『조선표류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야스다로 대표되는 표류일본인이 부산에서 어떤 접대를 받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야스다일행은 경상우도를 거쳐 온 관계로 부산 경내에서는 ‘가덕도 - 다대포 - 부산포 - 우암포’ 포구를 거치거나 체류했다. 이 중 다대포에서 한 달을 머무르며 기본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부산포를 거쳐 우암포에서 머무르며 일공 및

* 본 논문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 “부산항 개항역사 재조명 국내 심포지엄”(2020년 11월 20일)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부경대학교 사학과 강사 / sleeping100@hanmail.net

접대를 받고 본국으로 송환되기를 기다렸다.

둘째, 야스다는 중급무사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류일본인보다 우대하여 접대를 받았다. 기본적으로 일공 중 요미는 일반 표류인들에게는 하루 2되 지급되었으나 야스다는 세견1 송사선의 예에 따라 하루 4되가 지급되었다. 연향 음식 및 동래 부사의 선물도 추가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표민수수는 우암포에 설치된 별도의 영막에서 이루어졌는데, 대마도 관원인 관수, 재판, 대관이 육로로 접대 인원을 호송하여 전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야스다는 조선의 전별 의례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일본식 예법에 따라 음례를 행하기도 하여 상호간 예법으로 의례를 실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선후기, 특히 18세기 이후 대마도 외의 표류일본인에 대한 표민수수 실태는 기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힘들었지만 본 자료를 통해 부산 지역 표류민수수 제도 운영 및 접대 양상이 보다 선명해졌다. 이는 해양도시 부산의 특수성 및 교류의 흔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주제어 : 부산, 표류일본인, 다대포, 우암포, 표민수수, 표류일본인 접대, 『조선표류일기』

I. 들어가며

조선 개창 이후 바다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지’,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교두보’ 같은 희망이나 긍정적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왜구의 침략이 반복되면서 바다와 그 주변은 ‘황폐화’, ‘불안’, ‘긴장’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한 공간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인식은 바다를 통해 접촉하는 외부인에 대한 시각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왜구=일본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면서 약탈의 의도가 없이 조선에 순수 표착한 일본인이라 할지라도 경계의 눈초리로 일본인을 대하게 되었다.

경계 가득한 시선을 거두고 조선에 표착한 일본인을 보호·송환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기해동정(1419) 이후 왜구의 위협이 사라지면

서부터이다.¹⁾ 물론 임진전쟁 이후 일본과의 국교 재개 과정에서 체계적인 표류인 송환시스템이 마련되었던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해적·약탈의 의도가 없는 표류일본인들에게는 양식과 식수 등을 공급하고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었다.²⁾ 하지만 이마저도 을묘왜변 이후부터는 표류일본인들의 왜구화 우려로 인해 송환시키지 않는 사례가 점차 많아졌다.³⁾

그렇다면 임진전쟁 이전, 조선 전기에는 어느 지역에서 표류일본인 송환을 담당했을까?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힘들지만 왜관이 있는 제포, 부산포, 염포 등이 경유지 혹은 담당지역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454년 전라도 내례포(內禮浦)에 표착한 일본인의 경우 단종이 경상도 제포(濟浦)로 예인한 후 경상도 관찰사에게 양식의 지급과 함께 일본으로의 송환을 지시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일본인의 표착 지역이 전라도였는데 송환을 진행할 수 있는 포소 왜관 중 가장 가까운 곳이 제포였으므로 이곳으로 예인된 것이지, 경상도 지역에 표착하였다면 부산포나 염포가 송환 업무를 담당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만큼 왜관이 있던 포소들이 조선 전기부터 일본과의 교류를 담당하던 주요 포구였음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조선 전기의 이런 역할이 그대로 이어져 임진전쟁 이후 왜관이 있던 부산의 포구들은 표류일본인에 대한 송환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부산 지역이 담당하던 송환업무 규정 및 사례에 대해서는 『통문관지』, 『증정교린지』, 『변례집요』, 『비변사등록』, 『표인영래등록』 등 각

1) 이훈,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0, 41쪽.

2) 『명종실록』 1년 7월 17일 신미; 『명종실록』 9년 3월 10일 경술; 『명종실록』 12년 4월 21일 갑진.

3) 이훈, 위의 책, 2000, 50~51쪽.

4) 『단종실록』 2년 7월 18일 정묘; 『단종실록』 2년 9월 2일 경술; 『단종실록』 2년 9월 3일 신해.

중 규정집과 사례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이 실제 사례 별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다.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사료가 본 연구에서 활용하게 될 『朝鮮漂流日記』이다.

『조선표류일기』는 사츠마번[薩摩藩] 출신 무사인 야스다 요시카타 [安田義方]가 조선에 표착했다가 사츠마로 호송되는 과정을 쓴 일기이다.⁵⁾ 현재 이 자료는 고베대학 도서관의 스미다문고[住田文庫]에 소장되어 있고, 원문은 웹⁶⁾상에서 공개중이다.⁷⁾ 본 자료는 일찍이 일본에서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⁸⁾ 이어 국내에서도 정성일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사츠마번사의 표류 및 송환 과정을 정리⁹⁾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 번역서가 출간되어¹⁰⁾ 자료에 접근하고 활용하기 용이해졌다. 특히 필담과 채색 삽화가 매우 세밀하여 당시 조선의 상황 및 표류인에 대한 처우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때문에 번역서 출간 이후 이를 활용한 연구 성과¹¹⁾가 다수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 성과에서도 보이듯이 최근에 들어서야 이 표류일기가 국내에서 복식, 회화, 활용 등의 분야에서 다채롭게 활용되고 있다. 하

5) 심민정, 『『朝鮮漂流日記』(1819)에 나타난 표류왜인 호송과 접대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70, 2020, 128쪽.

6) <http://www.lib.kobe-u.ac.jp/directory/sumita/5B-10>.

7) 심민정, 앞의 논문, 2020, 128쪽.

8) 『조선표류일기』는 일본에서 먼저 연구되어 『薩摩藩士 朝鮮漂流日記』(池內敏, 講談社新書, 2009)가 출간된 바 있다.

9) 정성일, 『일본 사쓰마번사의 조선표류일기와 쓰시마번의 조사기록』, 『동아시아 표해록』(아시아문화연구소 엮음), 역사공간, 2018.

10) 이근우·김윤미 역, 『조선표류일기』, 소명출판, 2020.

11) 이근우, 『『조선표류일기』의 회화자료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제64호, 2019; 심민정, 『『朝鮮漂流日記』(1819)에 나타난 표류왜인 호송과 접대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70, 한일관계사학회, 2020. 11; 이윤정, 『『조선표류일기』 속 상급 관리들의 복식양상』, 『동북아문화연구』 제65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0. 12; 문경호, 『『朝鮮漂流日記』의 사료적 가치와 활용방안』, 『진단학보』 제135호, 진단학회, 2020. 12.

지만 여전히 제도적인 측면과 실상을 접목시키는 부분에서는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 책에 그려진 그림 및 필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부산 지역에 도착한 표류인이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접대를 받았는지 살펴보려 한다. 특히 이 일기의 저자인 야스다 요시카타는 직급이 있는 무사였으므로 일반 표류민들과는 다른 접대를 받았음을 선행 연구에서 일부 확인하였다. 즉 조선 측에서 야스다에게 제공한 물품, 음식 등은 격식을 갖춘 경우가 많고, 담당 관원들도 공손한 태도로 임했다. 또한 마지막 전별연에서는 당시 동래부사(東萊府使)가 야스다를 비롯한 2인의 관직자에게 접대 대우를 격상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장계를 올리는¹²⁾ 등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¹³⁾

이에 본고에서는 야스다처럼 직급이 있는 일본인이 표착하였을 경우 부산에서 어떻게 대우하였는지에 주목하여 접대를 확인해 본다. 특히 표류왜인이 부산 경내로 들어오면서 어떤 절차로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지, 부산에서의 실질적인 접대 양상은 어떠했는지 등을 『조선표류일기』를 기초로 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바다를 통한 일본과의 교류 일면이 한층 더 명확하게 구명되기를 바란다.

Ⅱ. 표류일본인이 체류한 부산 지역 포구

야스다 일행은 1819년 6월 4일 충남 서천군 비인현(庇仁縣)에 표착하였다. 이들이 탄 배는 귀수환(龜壽丸)이고 총 25인¹⁴⁾이 승선하고 있었다. 표류왜인들은 비인현 안파포(安波浦)에 머물면서 접대 및 조사를

12) 『비변사등록』 순조 19년(1819) 10. 5.(음).

13) 심민정, 앞의 논문, 2020, 129쪽.

14) 당시 표류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忠淸兵營啓錄』(『各司謄錄』 7 忠淸道篇 2)에 기록되어 있다.

받은 후 조선 배로 옮겨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였다.¹⁵⁾

일반적으로 18세기 이후 조선에 표류한 일본인은 크게 대마도 왜인과 타 지역 왜인의 두 부류로 구분하여 호송하는 장소를 달리하였다. 대마도 표왜의 경우 표착(漂着)하면 왜관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때 조선 정부는 왜관을 통해 매 선척마다 양미(糧米) 2섬, 1인당 무명 1필을 제공해 주었다.¹⁶⁾ 반면 대마도 이외 지역에서 표류한 왜인은 타도표왜(他島漂倭) 혹은 심처왜(深處倭)라고 불렀는데¹⁷⁾, 이들은 왜관으로 이송되지 않았다. 경상 좌도(左道)에 표류한 자는 별차(別差)가 문정(問情)하고 왜관에서 20리 떨어진 우암포(牛巖浦)로 이송한다. 경상 우도(右道)에 표류한 사람은 옥포(玉浦)의 역학(譯學)이 문정하여 다대포(多大浦)에 이송하였다. 그 후 관왜(館倭)가 와서 서로 만난 후 왜관을 볼 수 없는 외양(外洋)으로 우회하여 우암포로 이동·정박하였다. 또한 호남이나 영동의 여러 도에 표류한 자는 서울에서 문정관(問情官)을 보내거나 혹은 해당 도의 역학으로 하여금 문정하게 한 후 우암포로 이송하였다.¹⁸⁾

야스다 일행의 경우 타도표왜에 해당하며, 전라도를 거쳐 경상우도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파견된 문정관의 조사를 받고 다대포로 간 후 다시 우암포로 이동하는 경로를 밟아야 했고, 실제로 정해진 규정대로 이동하였다.¹⁹⁾ 이들이 부산에서 이동한 포구들은 ‘가덕도 → 다대포 → 부산포 → 우암포’인데 각 포구의 모습과 생활이 『조선표류일기』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들이 체류한 부산 지역 포구들에서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본다. 한편 가덕도의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으므로 본 장에서는 다대포, 우암포, 부산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5) 심민정, 앞의 논문, 130쪽.

16) 『증정교린지』 권2, 馬島漂倭.

17) 이훈, 앞의 책, 2000.

18) 『증정교린지』 권2, 他島漂倭. (심민정, 앞의 논문, 2020, 130쪽에서 재인용)

19) 심민정, 위의 논문, 2020, 131쪽.

1. 다대포(多大浦)²⁰⁾

야스다 일행은 가덕도에 잠시 머무른 후 타도포왜 호송 규정에 따라 다대포로 이동하였다. 다대포에 도착한 다음 날 이곳에 있는 영막에서 표류왜인에 대해 간단한 1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1차 조사는 표류왜인의 선장에게 간단하게 문답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 같다. 왜냐하면 야스다 자신이 육상(陸上)하였다는 언급이 없고, 선장인 마츠모토에게 카와

〈표 1〉 사츠마번 표류왜인 호송 경로

조선표류일기	비인현 안과포 → 서천 佳也召島 ¹²⁾ → 만경 고군산 → 蟬島 → 水島 →
각사등록	비인현 마량진 → 서천 개야소도 → 만경현 고군산진 → 부안현 위도진 → 영광군 범성진 →
조선표류일기	나주 八禽島 ¹³⁾ → 二家島 ¹⁴⁾ → 진라좌도의 항구 →
각사등록	나주목 지도진 → 영암군 완도진 → 강진현 마도진 → 장흥부 녹도진 → 낙안군 사도진 →
조선표류일기	경상도 순천 ¹⁵⁾ → 거제 옥포 → 가덕도 → 다대포, 우암포
각사등록	순천부 방답진 → 고성현 통영 → 동래부

* 『조선표류일기』 권5~권7, 『각사등록』7, 충청도편2, 「충청병영계록」. 참조



〈그림 1〉 사츠마번 표류왜인 체류지
(조선표류일기 기록은 ●, 각사등록 기록은 + 표시)

20) 『조선표류일기』에서는 다대포를 ‘多大浦’나 ‘太多浦’로 기록하고 있다.

카미와 자신의 병세를 알리고 의원을 청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관²¹⁾에서 비선(飛船)²²⁾이 오고, 관선(官船)²³⁾ 2척이 바로 따라왔는데,²⁴⁾ 우선 표류왜선의 선장이었던 마츠모토를 각정(脚艇)에 태우고 다대포에 상륙시킨 뒤 장막 안에서 조사하였다. 야스다와 일부 선원들은 다음 날인 9월 3일 오전에 2차 조사를 받았다.²⁵⁾



<그림 1> 다대포도

- 부산포에서 50리 떨어져 있다고 하며, 부산의 서쪽에 있다.
- 포구 안에는 마을이 수백 보에 걸쳐 이어져 있다.
- 바닷가에는 성곽을 쌓았는데 성벽은 높지 않으나 외곽이 서너 겹이고, 각 광마다 문이 있으며 가옥이 서로 이어져 있다.
- 이 포구는 과거에 일본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항구였다고 한다.

(『조선표류일기』 권7, 8월 30일(음))

21) 야스다는 『조선표류일기』에서 초량왜관을 ‘대마도왜관’으로 지칭하고 있다.

22) 대마도 비선으로 추측된다.

23) 부산 지역에 있던 수군진영의 관선으로 보인다.

24)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56쪽; 『조선표류일기』 권7, 9월 2일(음).

25)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56쪽; 『조선표류일기』 권7, 9월 3일(음).

호남이나 영동의 여러 도에 표착한 자는 서울에서 문정관(問情官)을 보내거나 해당 도의 역학(譯學)이 정황을 물은 뒤 우암포에 데려다 맡기고 돌아갈 때까지 식량과 찬을 헤아려 지급한다²⁶⁾고 하였다. 야스다 일행의 경우 본 규정대로 다대포를 경유하여 우암포로 이동하였다.

선장을 비롯한 야스다 일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부산에 서는 두 나절 동안 다대포 포구 안 북쪽 산꼭대기에 별도의 영막을 만들었다. 영막 안에는 병풍으로 공간을 2구역으로 나누었는데 한 구역은 대마도 관리가, 한 구역은 조선인 관리가 자리하였다. 선장 마츠모토와 뱃사람 4명이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표류한 배의 상황,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 무기 등에 대해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²⁷⁾ 다대포 영막에서 이루어진 조사 후 야스다 일행은 조선 배에서 대마도 배인 정덕환(正德丸)으로 옮겨졌는데,²⁸⁾ 조선의 배보다 자리가 넓고 편안해 야스다는 상당히 만족해했다.

한편 야스다가 다대포에 머무르는 동안 장례를 치러야하는 특수 상황이 발생하였다. 야스다와 함께 동행한 중급 무사 중 카와카미의 병이 낫지 않아 다대포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조선 배에서 죽음에 이른 것이다. 대마도 관리는 조선 배에서 죽었다고 하면 조선의 예법에 따라 도성에 보고해야 하므로 조선 측에 죽음을 알리지 않고 시신을 대마도 배로 옮겨왔다.²⁹⁾ 그리고 2일 뒤 장례 진행 여부를 논의하였다. 일본 본국에서 장례를 치를지 초량왜관에서 장례를 치를지 묻는 조선·대마도 관인에게 야스다는 왜관 내 사지(寺地)³⁰⁾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하였다. 장례와 조문, 제사 등에 대해 기록했다는 후편(後篇)은 남아있지 않아

26) 『중정교린지』 권2, 「차왜」, 『타도표왜』

27)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56쪽; 『조선표류일기』 권7, 9월 3일(음)

28)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56쪽; 『조선표류일기』 권7, 9월 3일(음)

29)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56쪽; 『조선표류일기』 권7, 9월 3일(음)

30) 이 寺地는 초량왜관 내에 있던 東向寺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힘들지만 카와카미의 시신은 관곽(棺槨)을 갖추어 초량왜관으로 이송했다는 점, 카와카미의 신종(臣從) 3명만 관을 따라 배에 올랐다는 것, 초량왜관에 무덤을 만들었다³¹⁾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³²⁾ 이 과정에서 조선 측은 ‘표류인의 상륙은 법례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들어 야스다의 추선(追善) 요청을 끝까지 거부하였다. 이후 동래부사는 이덕관(李德官)을 보내어 조문하게 하였으며 포(布) 4필을 보내었다.³³⁾

다대포에 머물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특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본래 다대포는 경상우도를 거치는 표류일본인이 부산 경내에 들어온 후 처음 기초 조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한 가지 의문점은 다대포가 단순히 기초 조사를 진행하는 장소였나 하는 점이다. 예조에서 표류인 입송서계(入送書契)³⁴⁾가 내려오면 기다렸다가 관수왜(館守倭)가 여러 왜인을 거느리고 육로를 경유하여 우암포에 가서 모든 표류왜인을 불러모아 조사한 후 돌려보낸다³⁵⁾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야스다일행은 다대포에서 별도의 조사를 받았다. 간단한 정황만을 물었다고 하기에는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진 점, 영막(營幕)을 별도로 설치하고 조사를 했다는 점, 한 달이나 되는 기간 동안 다대포에 머물렀다³⁶⁾는 점은 규정과 다른 처분을 한 것인지, 혹은 다대포의 역할이 규정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31) 북병산에 왜인들의 무덤이 있었다. 개항 이후 초량왜관에 있던 일본인 무덤들은 화장하여 아미동(현재 비석마을)으로 옮겼다고 한다.

32)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59쪽; 『조선표류일기』 권7, 9월 7일(음)

33)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59쪽; 『조선표류일기』 권7, 9월 6일(음)

34) 漂倭를 들여보낸다는 서계.(『국역증정교린지』 제2권, 「差倭」 「他島漂倭」)

35) 『증정교린지』 권2, 「차왜」 「타도표왜」

36)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55~467쪽; 8월 30일~9월 29일(음).

2. 부산포(釜山浦)와 우암포(牛巖浦)

다대포에서 한 달 정도를 머문 표류인들은 본국으로의 귀환을 위해 부산포(釜山浦)를 거쳐 우암포(牛巖浦)로 이동하였다.³⁷⁾ 기본적으로 타도포왜와 관련한 대부분의 일들은 우암포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우암포에 왜인들이 오면 여기에서 머무르다가 돌아갈 때까지 식량과 찬을 헤아려 지급하였다. 그리고 각 포의 변장(邊將)과 왜관에 머무르고 있는 왜인 등이 5일씩 교대로 지킨다. 입송서계가 예조에서 내려와야지 관수왜가 우암포에 가서 표류왜인들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야스다 일행도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암포에 머물면서 일공(日供) 및 접대를 받았다.

다대포를 출발한 야스다 일행의 배는 조선배 8척이 뱃줄로 끌어서 운행하고, 대마도 관인들이 탄 배 2~3척은 돛을 올리고 운행하였다. 이들은 부산포가 있는 만 입구에 떠 있는 목도(牧島: 현재 영도)의 오른쪽으로 들어가 부산진을 거쳐 우암포로 내려갔다.(〈그림 2〉 참조) 영도의 왼쪽은 바닷물이 얁아서 큰 배가 지나다닐 수 없기 때문이었다.³⁸⁾ 부산진을 거쳐 이들은 부산포를 지나갔다. 야스다가 그린 부산만 안의 부산포는 부산진성과 우암포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에 여러 연구자들은 임진전쟁 당시 부산포해전이 발생했던 부산포의 위치를 우암포 앞바다로 상정하기도 했는데, 이 그림에 의하면 부산포는 그 보다 북쪽, 즉 자성대 및 동천 하구로 볼 수 있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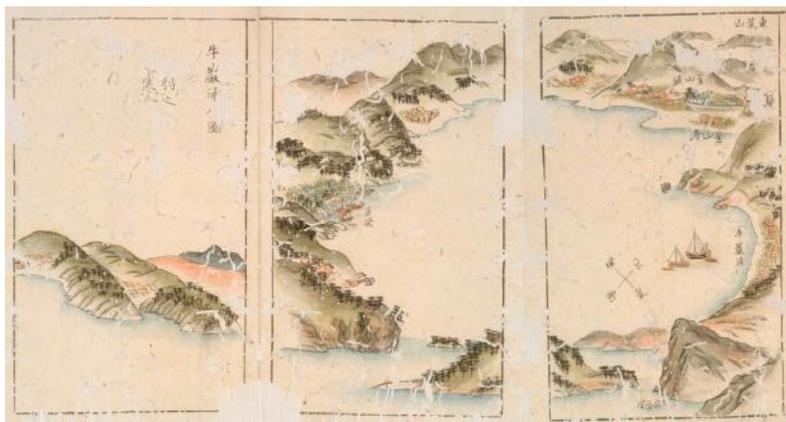
한편 야스다는 부산의 포구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림에 담기 전에는 부산포가 있는 만과 부산포를 동일시하기도 했다. ‘수백 보를 가서

37)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66쪽; 『조선표류일기』 권7, 9월 30일(음)

38)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66쪽; 『조선표류일기』 권7, 9월 30일(음)

39) 부산포해전 당시 부산포의 자세한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이근우, 앞의 논문, 2019, 252~258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큰 만에 이르렀는데, 바로 부산포이다(數百步得大灣則釜山浦也)⁴⁰⁾고 하거나, ‘대마도 배는 항상 부산포에 머물러 있다.’⁴¹⁾고 한 것이 이를 잘 추측하게 해준다. 만 안에는 좌측에서부터 마을이 이어져 있는데, <그림 2>에서도 집들이 여러 채 모여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왼쪽 아래에서부터 해안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일곡(一谷)·초량(草梁)·관하(坂下)·고관(古館)·소수(筱戍)·부산(釜山)마을⁴²⁾이 차례로 그림에 나타나는데, 상당히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우암포도(부산포 포함)

- 부산은 부산진성이 있는 곳이고, 침질제사가 머무는 곳이다.
- 부산성은 바다에 면해 있었고, 성첩이 수백 보였다.
- 우암은 마을에 백여 가가 있는데 우리가 탄 배와 호송선이 함께 이 포에 정박하였다. 이날부터 다음해 정월 14일까지 이곳에 머물렀다.

(『조선표류일기』 권7, 9월 30일(음))

40)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66쪽; 『조선표류일기』 권7, 9월 30일(음)

41)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56쪽; 『조선표류일기』 권7, 9월 1일(음)

42)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66쪽; 『조선표류일기』 권7, 9월 30일(음)

기본적으로 표류인들은 육지에 상륙하지 못하고 배 안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했다. 이는 앞서 다대포에서 카와카미의 시신을 태우고 왜관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 했을 때 조선 측에서 거부했던 사례⁴³⁾나 우암포에서 머물던 당시 동래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물 위에서 비좁게 지내지만⁴⁴⁾’이라고 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야스다는 육지로 내려가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병세가 조금 호전되어 물에 내려가기를 요청한 야스다는 대마도 통사 및 신복과 함께 배를 타고 우암의 남포(南浦)⁴⁵⁾에 도착했다. 조선인 통사가 포구로 마중왔는데, 마을 외곽으로 수백 걸음을 걸어가 자리를 잡았다.⁴⁶⁾ 이처럼 야스다의 요청으로 조선·대마도 통사들과 동행하여 육지로 오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이후로는 계속 배에서 머물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례적인 상황이 주어진 것은 아마도 야스다의 신분과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야스다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한 차례 더 배에서 내려 우암에 상륙하였다. 이곳은 지난 번에 상륙했던 남포(南浦)와는 다른 곳으로 생각되는데, 전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건물들이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우암에 있었던 표류왜인수주소 시설물을 일부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전별품 점검을 위한 표류민수주소는 우암촌 서북쪽 교외에 위치해 있으며, 대마도 관리들이 지은 여러 개의 건물들이 있었다. 임시 막사의 형태였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막사마다 색을 달리하여 각 건물을 구별하였다. 몇 채의 막사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스다는 두 군데의 막사에 들렀다. 처음 간 곳은 휴식소로, 여기에서 대마도 관리가 도해량미 목록을 보여주고 야스다에게 확인 후 받아가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간

43)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59쪽; 『조선표류일기』 권7, 9월 6일(음)

44)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71쪽; 『조선표류일기』 권7, 10월 27일(음)

45) 우암의 남쪽에 있는 포구라는 뜻인지, 지명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고지도상에 서는 우암에 ‘南浦’라는 지명은 찾을 수 없다.

46)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74쪽; 『조선표류일기』 권7, 12월 14일(음)

곳에서는 재판(裁判) 우치야마[內山]를 만나 조선에 대한 감사 인사 전 달을 부탁하였다. 재판에게 인사를 한 후 야스다는 다시 처음 막사인 휴식소로 돌아가 조선 관리 및 대마도 관리들과 인사를 나누었다.⁴⁷⁾

Ⅲ. 일공 및 잡물 지급

1. 요미와 잡물 지급

표류일본인들은 서천에 표착한 이후 부산까지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접대를 받았다. 접대에는 사연(賜宴)과 같은 연회 접대를 비롯하여 기본 양찬(糧饌)과 약재(藥材), 땀감 등의 필요 물품 제공까지 모두 포함한다. 본 장에서는 여러 접대 중 기본 요미와 필요 잡물 지급에 한정하여 확인해 본다.

요미와 잡물 지급은 체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701년부터 18세기 후반까지는 조선의 표착지에서 지급하는 요미가 하루 1인 2되가 정량⁴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1858년 전라도 흥양에 표착한 사츠마 표류인에게는 하루 1인 당 쌀 3되씩을 지급⁴⁹⁾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런 차이는 야스다 일행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즉 야스다 일행에게는 1인 1일 3되의 양미가 기준량으로 지급되었다. 야스다가 비인현을 떠나기 전 조선 조정에 쓴 편지에서 ‘하루에 한 사람이 한 끼 당 쌀 1되씩(3끼, 총 3되)’⁵⁰⁾ 받았다고 하였으며, 수도(水島)에서 양미를 지급받을 때에도 조선 관리가 ‘1일 1인 1끼니의 양미 1되’는 조정이 정하여 지급하

47)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89쪽; 『조선표류일기』 권7, 1월 7일(음)

48)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 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3, 378~379쪽.

49) 정성일, 위의 책, 2013, 365~366쪽.

50)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313쪽; 『조선표류일기』 권5, 7월 25일(음)

는 것으로 다른 읍에서도 문서와 장부에 따라 행하니 차후에도 이와 같을 것⁵¹⁾이라 했기 때문이다.⁵²⁾ 이 외에도 표류왜인에게는 소금과 야채, 장류, 생선 등이 지급되었다.

야스다 일행에 대한 이런 특별 처우는 부산에서도 이어졌다. 여러 체류지를 거쳐 부산에 도착한 대마도 표왜에게는 귀국 시 각 선박마다 양미(糧米) 2가마와 1인 당 무명 1필을 지급하였다.⁵³⁾ 그리고 타도 표왜에게는 우암포에 머무는 동안 별도의 요미(料米)를 지급하였음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요미는 한 사람 당 매일 쌀 2되, 백합젓 6작 7리, 미역 5전(錢) 3푼 7리, 소금 6작 7리, 대구어 1조(條), 건어 1마리, 참기름 2작, 채소 값에 해당하는 쌀 5홉, 생잡어 값에 해당하는 쌀 6홉 등을 지급한다.⁵⁴⁾ 그리고 귀국할 때에는 무명 1인 1필과 도해량미 각 10말을 지급⁵⁵⁾하는 것이 규정이었다. 하지만 야스다 일행은 처우를 격상하여 더 많은 양미가 지급되었다.

야스다를 포함하여 일행 중에 중급 무사 3명이 있었다. 이들 중 1명은 다대포에 도착한 후 사망하였으므로 2명의 무사가 남게 되었는데, 당시 동래부사는 장계를 올려 이들에게 제공하는 요찬과 연향은 표인영래차왜의 봉진압물의 예에 따르도록 요청하였다.⁵⁶⁾ 봉진압물은 세전1선송사의 예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은 요미를 지급받도록 변경되었다. 기존에 타도표왜에게 지급되던 양찬 규정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51)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21쪽; 『조선표류일기』 권6. 8월 6일.(음) 총 4말 5되의 양미가 지급되었다.

52) 심민정, 앞의 논문, 2020, 142쪽.

53) 『중정교린지』 권2, 馬島漂倭.

54) 심민정, 위의 논문, 139쪽.

55) 『중정교린지』 권2, 他島漂倭.

56) ‘所供料饌與宴需, 依漂民領來差倭之封進押物倭例’ 『비변사등록』 순조 19년 1819년 10월05일(음)

<표 1> 타도표왜와 표인영래차왜 봉진압물 양찬 지급 규정

	타도표왜	표인영래차왜 봉진압물
지급내역 (1일 1인)	요미 2되, 백합젓 6작 7리, 미역 5전 3푼 3리, 소금 6작 7리, 대구어 1조, 건어 1마리, 참기름 2작, 채소 값에 해당하는 쌀 5홉, 생잡어 값에 해당하는 쌀 6홉	요미 4되, 병미 1되, 콩 6되, 주미 2되 4홉, 초미 4홉, 장태(醬太) 4홉, 참기름 1홉 3작, 백합젓 6작, 소금 3홉, 겨자 4작, 건어 5마리, 미역 2냥, 청어 4마리, 대구어 1마리, 목미 1되, 참쌀 1되, 꿀 5작, 광어 4조, 전복 2개, 황밤 3홉, 진곡(眞曲) 7홉

※ 『중정교린지』 「연례송사」 세건제1선송사; 「차왜」 표인영래차왜; 타도표왜 참고.

이 중 요미만 계산해 보았을 때 ‘타도표왜’ 규정이 적용된다면 야사 다 일행은 24명이었으므로 하루에 총 4말 8되, 5일잡물로 받을 시에는 1섬 9말(24말)이 된다. 만약 ‘표인영래차왜’ 규정이 적용된다면 하루에 5말 2되(중급무사 8되, 나머지 4말 4되), 5일잡물로 지급받으면 6섬 10말 8되(중급무사 4말, 나머지 6섬 6말 8되)가 된다. 실제 이들 중급 무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 지급되었는지 알기 힘들지만 동래 부로부터 지급받은 요미 관련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819. 10. 25.(음) / 동래부사

요미(料米) 13말

반찬 및 물품 비용으로 쓸 쌀 3섬 6말(51말) 8되

쌀 합계 : 4섬 4말(64말) 8되

요태(料太) 1섬 5말(20말) 8되

㉡ 1820. 1. 5.(음) / 동래부사

요미 1섬 3말(18말)

별중 잡물가미 4섬 12말(72말) 3되

쌀 합계 : 5섬 14말(89말) 3되

요태 1섬 13말(28말) 8되

㉔ 1820. 1. 5.(음) / 동래부사

사쓰마주 표류선 24인

도해량미 16섬

㉕ 1820. 1. 10.(음) / 조선에게 지급받은 요미와 잡물 정리

“다대포부터는 **5일에 1섬(15말)씩 주셔서**, 아침 저녁의 음식으로 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야스다가 제공받은 요미 기록과 조선 측의 규정을 보면, ㉑, ㉒, ㉔ 모두 계산이 맞지 않아 지급 규정에 혼동이 온다. 다행인 것은 ㉔의 도해량미 지급의 경우인데, 규정과 실제 지급 내용이 일치한다. 즉 도해량미는 1인당 각 10말씩 지급하므로 24명에게 총 16섬이 지급된 것은 맞다. 한편 야스다는 이전까지 조선 측으로부터 받은 양미가 많아 도해량미를 받는 것을 극구 사양하였으나 대마도 역관이 예의라며 받기를 권유하였다. 하지만 대마도로 이동한 이후 대마도 관리들이 관련 서한을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니⁵⁷⁾ 양미를 실은 대마도의 관선과 증빙서류가 어디로 갔을지 의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2. 동래부 관원들의 후의

야스다는 우암포에 머무는 동안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로부터도 다양한 물품을 제공받았다. 일본에서 차왜나 연례송사 등이 파견되면 조선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예단을 지급하는 외에 사사로이 선물도 주고받았다.⁵⁸⁾ 하지만 일반적으로 표류민들에게 선물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급하는 일은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스다는 동래부사 및 부산첨사

57)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90쪽; 『조선표류일기』 권7. 정월 3일.(음)

58) 양홍숙, 『조선후기 동래 지역과 지역민 동향 - 倭館 교류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60~163쪽.

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선물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지급받고 있다. 구체
적인 물목은 <표 2>와 같다.

<표 2>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개별 지급 물목

지급 일자(음)	지급자	지급 물품 목록	답례품 (야스다)
1819.9.6.	동래부사	포 4필(조문용)	
9.9.	동래부사	화화주(禾花紬) 1필, 대호지(大好紙) 2속, 당필(唐筆) 1갑, 당묵(唐墨) 1자루, 자석연(紫石硯) 1면, 접첩선(摺疊扇) 3과, 단선(團扇) 2과, 선향(扇香) 1매, 우황청심환 5환, 용뇌안신환 3개, 화문안식(花紋案息) 2좌, 죽력주(竹瀝酒) 5선, 포육(脯肉) 2점, 참쌀 5말, 팔 3말, 황밤 2말, 대추 2말, 호두 2말, 잣 2말, 홍시 100개, 대구어 5마리	야식반(속은 붉고 겉은 푸른 색) 5개
9.14.	부산첨사	옥색 시진지(詩箋紙) 1속, 우황청심원 3알, 용뇌소합원 20알, 자금단(紫金丹) 4알, 굴병(橋餅) 5원, 별곽향(別藿香) 2량, 별황모필(別黃毛筆) ⁵⁹⁾ 3자루, 참떡 2자루, 부채 1채, 소주 2병, 붉은 옥구슬 1개, 참쌀 3되, 팔 2되, 생꿀 ⁶⁰⁾ 1되, 홍시 30개	
9.25.	조선조정 (전별물품) ⁶¹⁾	대관 백목 3필, 부역 백목 3필, 시종과 사공·격군 등 23인 각 백목 1필(총 백목 27필)	
	동래부사	옥색 면주(綿紬) 52척, 씨를 뺀 면화 2근, 약과 70개, 약료 1병, 닭 5마리, 계란 100개	
12.23.	동래부사	소주 10복자[鑊] ⁶²⁾ , 약포(藥脯) ⁶³⁾ 1봉지, 닭찜 1그릇, 약밥 1항아리, 약당(藥糖) 1항아리, 꽃감 4점, 호두 3말, 그림본 10폭, 별장지 2묶음, 잎담배 3봉	그림본 10폭에 오연절구 10수를 지어 답례함.
1820.1.3.	동래부사	떡 1봉, 꽃감 3련, 대구어 10마리, 술 1독	웃칠한 다단 찬합 1벌

59) 조선산 黃毛筆의 생산과 일본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이승민, 『조선산 黃毛筆의 생산과 일본과의 교역』, 『한일관계사연구』 70, 2020.’이 참고할 만하다.

60) 별집에서 떼어낸 그대로의 꿀.

61) 날씨가 추워서 미리 지급함.

앞선 시기이기는 하지만 18세기 재판차왜에게 동래부사가 선물로 지급한 물목은 주로 단오, 백중 등의 날에 먹거리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날이지만 공통적인 물목도 많은데, 1729년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재판기록(裁判記錄)』에 의하면 5차례에 걸쳐 동래부사가 재판차왜에게 지급한 물목은 다음과 같다.

- 唐扇子, 香丹子, 白紙, 黃毛筆
- 참쌀, 참기름, 꿀, 호도, 광어, 대구어, 생밤, 말린 꿩고기, 소주, 해삼, 대추, 홍합, 문어, 잣, 얼음⁶⁴⁾

이상 물목에서처럼 동래부사가 재판에게 지급한 대부분의 선물은 음식물이었고, 나머지는 부채, 종이, 붓 등이었다. 그에 비하면 일시적으로 머물다가는 표류인인 야스다에게는 더 두터운 후의와 선물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닭찜, 약밥, 약당 등 연향음식 상에 자주 올라가는 요리음식은 물론이고, 음식물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부채와 종이류 등은 야스다 일행이 특별한 표류인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것은 부산 첨사가 재판차왜에게는 선물을 준 사례를 찾기 힘들지만 야스다에게는 별도의 선물이 주어지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IV. 연향 접대

1. 연향 음식

표류왜인이 부산에서 머무르다가 귀국할 때가 되면 마지막으로 전별

62) 술의 양을 재는 그릇으로 술 4잔들이 그릇(대야)이다.

63) 고기를 조미하여 말린 육포(肉脯)(『한국민족문화대백과』)

64) 雨森芳洲, 『裁判記錄』 1729년 5월 4일; 5월 5일; 6월 1일; 7월 14일; 9월 25일(음)

연을 베풀어 주었다. 전별연은 1637년 호키(伯耆州) 표류민을 송환할 때가 시작⁶⁵⁾이었다. 이후 1646년 에치젠[越前州] 표류민⁶⁶⁾이 동래에 머물다 돌아갈 때와 1665년 이즈미[和泉州] 표류민⁶⁷⁾에게 다상(茶床)을 차려 연향을 베풀어 준 기록이 확인된다. 그리고 1791년 가가[加賀州] 표류민⁶⁸⁾, 1802년 무쓰[陸奥州] 표류민⁶⁹⁾, 1804년 가가[加賀州] 표류민⁷⁰⁾, 1811년 사쓰마[薩摩州] 표류민⁷¹⁾, 1819년 야스다 일행에게는 ‘궤연(饋宴)’이라는 용어로 연향을 베풀어 주었음이 확인된다.⁷²⁾

돌아갈 때에 베풀어주는 음식과 연향은 다른 송사와 같았는데, 예단 다례는 동래부의 지대색(支待色)이 거행하였다.⁷³⁾ 공식적인 전별연 일반 표류인에게 베풀어진 것처럼 야스다 일행도 조선 조정의 전별연 접대를 받았다. 그런데 야스다일행에게는 여느 표류인과는 달리 전별연 외에도 조선 조정이나 지방관의 사연(賜宴)이 추가로 베풀어지고 있었다.⁷⁴⁾ 이는 야스다가 어느 정도 신분과 직책이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조선 조정에서 별도로 연회 음식을 지급해 주었다는 것⁷⁵⁾은 야스다가 특별대우를 받았음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한 번은 비인현을 떠날 때 사연 접대를 받았는데 당시 비인현 태수 윤영규는 조정에서 내려준 음식이라고 밝히고 있다.⁷⁶⁾ 두 번째는 우암포에 도착했을 때 동래부에

65) 이훈, 앞의 책, 187쪽.

66) 『邊例集要』 권15, 『漂倭船』, 1646년 2월.

67) 『邊例集要』 권15, 『漂倭船』, 1665년 8월.

68) 『邊例集要』 권15, 『漂倭船』, 1791년 9월.

69) 『邊例集要』 권15, 『漂倭船』, 1802년 7월.

70) 『邊例集要』 권15, 『漂倭船』, 1804년 3월.

71) 『邊例集要』 권15, 『漂倭船』, 1812년 5월.

72) 심민정, 앞의 논문, 2020, 145~146쪽.

73) 『국역중정교린지』 제2권, 『타도표왜』, 92쪽.

74) 체류지에서 야스다일행에게 베풀어주었던 賜宴에 대해서는 ‘심민정, 앞의 논문, 2020, 185~190쪽’이 참조된다.

75) 심민정, 위의 논문, 148쪽.

76)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312쪽; 『조선표류일기』 권5, 7월 25일.(음)

서 마련해준 음식이다. 우암포에서 연향접대를 받을 때의 음식상은 일반적인 표류왜인들보다는 격상된 접대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왜냐하면 음식접대가 이루어지기 20여 일 전에 동래부사 박기수는 일본인 관직자(官職者) 2인의 대우를 격상시켜 접대할 것을 요청하는 장계를 올리고⁷⁷⁾ 있기 때문이다. 이때 배푼 연향음식은 총 13종이었는데 야스다와 히다카, 즉 직급이 있는 두 명의 무사에게 각각 별도의 상으로 차려졌다.



<그림 3> 우암포에서 동래부로부터
접대받은 음식상

음식 목록

야스다의 기록에서는 상찬도[食卓圖]와 함께 당시 야스다가 접대받은 음식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음식상은 세로로 2자 정도, 가로로 3자 정도의 크기였다. 음식은 13가지였는데, 종류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⁷⁸⁾

- ① 떡: 청색, 황색, 백색의 3색 떡. 참깨로 장식

77) 『비변사등록』 순조 19년(1819) 10. 5.(음).

78) <그림 3>을 비롯하여 우암포에서 접대받은 음식 상차림과 종류 등에 대해서는 ‘심민정, 앞의 논문, 2020, 146~147쪽’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 ② 꿀
- ③ 약밥⁷⁹⁾: 밤, 대추, 꽃감을 섞었으며 위에 잣을 올림. 색은 붉은 색.
- ④ 닭고기: 얇게 썰어서 계란, 보리가루, 마늘을 섞어 옷을 입힘.
- ⑤ 생선회, 전복, 얇은 계란진[薄焦卵]
- ⑥ 채소, 과일, 생강, 꿀을 넣고 푹 끓인 것.
- ⑦ 새고기[鳥肉] 국⁸⁰⁾
- ⑧ 조리 전복에 잣을 뿌린 것
- ⑨ 약과: 꿀을 끼얹음
- ⑩ 붉은 쌀강정
- ⑪ 생밤
- ⑫ 배: 꿀즙으로 삶은 배에 잣을 뿌림
- ⑬ 감

야스다는 조선 측에서 마련해 준 음식을 대체로 즐겼으며 특히 약밥(찰쌀밥)을 맛있어했다. 약밥은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히 물어볼 정도였다. 당시 동래부 관인이었던 첨지 이덕관이 써준 약밥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찹쌀은 겨를 여러 번 찢어놓고, 생밤은 삶아서 껍질을 벗기고, 큰 대추를 찢는다. 꽃감, 생밤, 대추 세 과일을 잘게 썰어 함께 시루에 넣어서 충분히 찢는다. 다시 시루에 담을 때 쌀을 한 층 깔고, 쌀 위에 삼색 과일을 덮습니다. 또 쌀을 한 층 깐 다음, 다시 과일을 덮고

79) 원문에는 찹쌀밥이라 적혀 있다. 야스다가 찹쌀밥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약밥(약식)으로 생각된다. 약밥 만드는 방법은 『조선표류일기』 권7. 11월 13일.(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80) 번역본에는 삼계탕이라고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삼계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④번 음식명에는 ‘鷄肉’이라고 되어있는 반면 ⑦번 음식명에는 ‘鳥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닭이 아닌 조류일 수도 있다. ‘田代和生, 『新・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 株式會社ゆまに書房, 2013, 210~241쪽’에서는 일본 사신을 접대할 때 오리고기나 꿩고기 등을 탕으로 내기도 했다 하므로 닭이 아닌 다른 종류의 조류라 생각된다.

충분히 찌서 다른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꿀과 참기름을 뿌리고,
또 맑은 간장도 조금 뿌려서 한 번 더 찌서 먹습니다.⁸¹⁾

㉠ 참쌀 1말, 곱감(乾柿) 1관(串), 대추 1말, 생밤 1말, 꿀 2도(刀), 참
기름 2도(刀), 감장(甘醬) 1홉⁸²⁾

약밥 만드는 방법에 제시된 재료는 ㉠에서처럼 『동래부사례』에 기재되어 있는 약밥 재료와도 일치한다. 여기에는 동래부 관청에서 만드는 다양한 음식 재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약밥 외에도 약과, 술, 기름, 고기, 장(醬) 등을 만드는 식재료도 기재되어 있다. 관에서 접대 등을 위해 많이 소용되는 식재료는 별도로 작성해 놓은 것이다. 어쨌든 야스다가 약밥을 맛있게 먹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탓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래부사는 약밥 한 항아리를 만들어 들여 넣어주기도 하였다.⁸³⁾

표류일본인 송환에 대한 서계가 일단 왜관 측에 접수되면, 동래부는 조정의 지시대로 귀국이 얼마 남지 않은 표류민에게 연향을 베풀었다. 이제껏 전별연의 규모나 실제 접대 음식 등에 대해서는 기존 사료들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힘들었다. 『증정교린지』 등의 규정집에서도 일반 송사의 예로 접대한다고는 기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식재료나 상차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스다는 동래부 사원에서처럼 상차림을 별도의 그림으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상차림과 음식명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전별연 음식을 확인할 수 있다.

- 음식은 16가지로 사발 비슷한 접시에 담았다.
- ① 구운 참쌀떡 ② 구운 보리떡 ③ 국수[素麪] ④ 생밤 ⑤ 찢 밤과 감 ⑥ 백거여(白粒糲) ⑦ 적거여(赤粒糲) ⑧ 생꿀 ⑨ 장국 ⑩ 생굴 ⑪

81)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73쪽, 『조선표류일기』 권7. 정월 3일.(음)

82) 『東萊府事例』, 「官廳色」, 藥飯料式.

83)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75쪽, 『조선표류일기』 권7. 12월 23일.(음)

반 쯤 생것인 간 ⑫ 콩나물[豶] ⑬ 돼지수육 ⑭ 계란을 입힌 돼지고기 ⑮ 계란 ⑯ 말린 대구

- 고기에는 각각 채화(彩花)로 장식했는데, 청색·홍색·백색의 세 가지 색깔 종이로 만들었다.⁸⁴⁾

전별연(錢別宴) 음식은 동래부에서 베풀어준 13종의 사연 음식보다 더 많은 16종의 음식이 차려졌다. 개별상은 야스다와 히다카, 대마도 관리 2인(관수와 재관), 통사 2인, 조선인 관인 2인(박유청, 이덕관)에게 각각 차려졌다. 대마도 관리는 먹을 만한 음식이 없더라도 생밤과 계란은 하나씩 먹도록 권유하였지만 야스다는 육식을 거의 먹지 않는 일본인들과 달리 돼지고기, 쇠고기 등 가리지 않고 전별연 음식을 상당히 즐겼다.⁸⁵⁾

2. 전별의례

표류인들에게 베풀어주는 전별연은 정해진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전별연 규정은 1637년의 예에 따르고 있는데, 동래부 측에서는 훈도·별차·소통사가 동행하였고 연향시에는 왜관 측에서 관수·재관·대관과 사자 일행이 참가하였다.⁸⁶⁾ 이들은 외국에서의 위신을 생각하여 50~90명 이상의 많은 인원을 인솔하여 육로로 우암포까지 갔다.⁸⁷⁾ 이때 왜관의 관수는 동래부사의 통보에 따라 수수를 행하는 당일 소속 관료들을 거느리고 위의를 정비하여 육로로 왜관에서 부산진을 거쳐 강선대(降仙臺: 출우검역소 자리)⁸⁸⁾의 동

84)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90~491쪽; 『조선표류일기』 권7. 1월 7일.(음)

85)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91쪽; 『조선표류일기』 권7. 1월 7일.(음)

86) 이훈, 앞의 책, 2000, 179쪽.

87) 『변례집요』 권15, 「水陸路去來」.(이훈, 앞의 책, 2000, 179쪽에서 재인용)

88) 현재의 배정고등학교 일대. 문현동 지킴골(대연고개) 일대로 신선이 놀았다는 너른

쪽 산기슭 도로에서 우암포에 이른다. 이곳에서 조선관헌이 표민을 수취하고 대마도의 공선(公船) 혹은 세견선(歲遣船)에 태워 일본에 송환한다.⁸⁹⁾

마지막 연향이 있던 날 표류민들은 우암포 선착장 근처에 마련된 연회소에서 거의 하루 종일을 보냈다. 바로 이날 쌀과 같은 표선 적재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표류민들에 대해서도 연향이 끝난 후 몸 검색이 있었다.⁹⁰⁾ 동래부 지대색(支待色)이 주관하는 연회 다상(茶床)은 대략 1646년 경에 이르러 모양새가 갖추어졌는데, 다상 연회에는 왜관의 관수 일행이 가서 참가하였다.⁹¹⁾

공식적인 전별연이 치러질 때도 물론이지만 야스다 일행은 사연이라도 음식상을 받을 때에는 의복을 갖추어 입고, 서로 대면하고 배례를 하면서 음식상을 받는 등 격식을 갖추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모습은 수도에서 고군산진첩사 일행이 베풀어주었던 사연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고군산진첩사가 조선인 고관 오자명 한 사람에게만 제대로 된 소반에 음식을 갖추어주자, 야스다는 각자 제대로 된 소반에 모두 주던지, 아니면 자리 위에 모두 줄 것을 요청하여 결국 첩사 조대영은 오자명의 소반을 장막 밖에 내려놓고 야스다 일행들과 서로 마주하여 음식을 먹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⁹²⁾이다.⁹³⁾

이 때문인지 전별연이 행해지는 당일에도 야스다는 의례의 예법을 지키려고 애썼다. 우암에서 전별품을 검사할 때 도해랑미를 접수하고 대마도 재판과 인사를 나눈 후 야스다와 히다키는 조선 관인 및 대마도

터가 있다고 해서 ‘廣仙臺’로 불렀던 곳이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89) 小田省吾 교열, 都甲玄卿(鄉) 編, 『釜山府史原稿』2, 383~384쪽.

90) 中田邦造 編, 『加船漂流談』, 日本石川縣圖書館協會, 1938.(이훈, 앞의 책, 2000, 179~180쪽에서 재인용)

91) 이훈, 앞의 책, 2000, 187쪽.

92)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33~434쪽; 『조선표류일기』 권6. 8월 6일.(음)

93) 심민정, 앞의 논문, 149~150쪽.

관인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이때 간단하기는 했지만 조선 관인 박유청과 이덕관은 대마도 관리들과 함께 각각 서로 자리에서 서서 상읍(相揖)하는 예로 인사한 후 자리에 앉았다. 이에 야스다와 히다카는 일본의 예법대로 배례(拜禮)를 하였다.⁹⁴⁾ 격식을 따지는 야스다의 모습은 전별연 마지막 장면에서도 나타났다. 조선의 접대 관원과 대마도 역관은 마지막에 상읍하는 예를 야스다에게도 행하기를 권했지만 야스다는 일본의 예법에 따라서 절하겠다고 고수했다.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일본의 예로는 서서 상읍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절을 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일본의 예법대로 예를 행한 후 조선 측 관리와 대마도 역관은 조선의 예에 따라 서서 상읍하기를 다시 청했다. 야스다는 거절하지 못하고 상읍례로 마무리하였다.⁹⁵⁾

절차가 끝나면 표류일본인은 왜관에서 용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선편이나 대마변에서 파견된 호송사의 인도 하에 대마도로 송환되었다. 귀국 선편이란 대개 공작미(公作米)를 싣고 돌아가는 연례송사선이나 일정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왜 선편·비선 등으로, 이 배들이 표선을 호송하여 대마도로 갔다. 대마도로 돌아가는 배편이 없을 때에는 쓰시마변에서 표선을 호송해 갈 배와 사자를 파견해 왔다. 1782(정조6)년에는 쓰시마변이 전라도 흥양에 표착한 사쓰마 표류민을 호송해 가기 위해 호송사를 비롯하여 대략 10~11명을 파견한 경우⁹⁶⁾도 있었다.

야스다 일행도 전별연을 끝으로 대마도 관리인 관수·재관·대관 3인의 전송 하에 출선하였다. 출선을 끝으로 조선에서의, 부산에서의 표류일본인 송환은 마무리되었다.

94)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89쪽; 『조선표류일기』 권7, 1월 7일(음)

95) 이근우 외 역, 앞의 책, 492~493쪽; 『조선표류일기』 권7, 1월 7일(음)

96)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2839(이훈, 앞의 책, 2000, 180쪽)

V. 나가며

『조선표류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표류일본인의 모습, 조선인들의 접촉과 접대, 빼어난 글 솜씨로 필담을 하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야스다의 모습은 보통의 일본인과는 다르다.

야스다는 자신의 기록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처음 표착했던 충청도 비인현 태수 윤영규에 대한 애정은 시로, 그림으로, 때로는 대접받은 음식의 맛으로까지 표현되었다. 반면에 고군산진 첨사나 문정관이었던 조명오에게는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의 글에 드러난 감정표현이 사실이라면 부산에서의 접대에 상당히 만족했음이 틀림없다. 일본어에 능통한 조선인 소동에 대한 애정어린 질문, 조선의 약밥이 맛있으며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모습, 계란 하나만 집어 먹으라는 대마도 역관의 권유에 소고기와 돼지고기 모두 좋아한다며 맛있게 먹는 모습까지 모두 부산에 대한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낸 장면일 것이다.

야스다로 대표되는 표류일본인이 부산에서 어떤 접대를 받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본 연구를 맺고자 한다.

첫째, 경상우도를 거쳐 온 관계로 부산 경내에서는 ‘가덕도 - 다대포 - 부산포 - 우암포’ 포구를 거치거나 체류했다. 이 중 다대포에서 한 달을 머무르며 기본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부산포를 거쳐 우암포에서 머무르며 일공 및 접대를 받으며 본국으로 송환되기를 기다렸다.

둘째, 야스다는 중급무사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류일본인보다 우대하여 접대를 받았다. 기본적으로 일공 중 요미는 일반 표류인들에게는 하루 2되 지급되었으나 야스다는 세견1 송사선의 예에 따라 하루 4되가 지급되었다. 연향 음식 및 동래부사의 선물도 추가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표민 수수는 우암포에 별도의 영막에서 이루어졌는데, 대마도

관원인 관수, 재판, 대관이 육로로 접대 인원을 호송하여 전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야스다는 조선의 전별 의례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일본식 예법에 따라 읍례를 행하기도 하여 예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선후기, 특히 18세기 이후 대마도 외의 일본표류인은 우암포에서 표민수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껏 구체적인 실태는 확인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본 자료를 통해 부산 지역 표류민 수수 제도 운영 및 접대 양상이 보다 선명해졌다. 이는 해양도시 부산의 특수성 및 교류의 흔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安田義方, 『朝鮮漂流日記』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증정교린지』
『변례집요』
『東萊府事例』
『各司謄錄』 7, 忠淸道篇 2, 『忠淸兵營啓錄』
雨森芳洲, 『裁判記録』

2. 저서 및 논문

문경호, 『『朝鮮漂流日記』의 사료적 가치와 활용방안』, 『진단학보』 135, 2020.
심민정, 『『朝鮮漂流日記』(1819)에 나타난 표류왜인 호송과 접대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70, 2020.
양홍숙, 『조선후기 동래 지역과 지역민 동향 - 倭館 교류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이근우·김윤미 역, 『조선표류일기』, 소명출판, 2020.

- 이근우, 『『조선표류일기』의 회화자료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64, 2019.
- 이승민, 『조선산 黃毛筆의 생산과 일본과의 교역』, 『한일관계사연구』 70, 2020.
- 이윤정, 『『조선표류일기』 속 상급 관리들의 복식 양상』, 『동북아문화연구』 65, 2020.
- 이훈,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0.
-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 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3.
- _____, 『일본 사쓰마번사의 조선표류일기와 쓰시마번의 조사기록』, 『동아시아 표 해록』(아시아문화연구소 엮음), 역사공간, 2018.
- 小田省吾 교열, 都甲玄卿(郷) 編, 『釜山府史原稿』2
- 田代和生, 『新・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 株式會社ゆまに書房, 2013.
- 池内敏, 『薩摩藩士 朝鮮漂流日記』, 講談社新書, 2009.

투고일 : 2021. 05. 24. 심사완료일 : 2021. 06. 22. 게재확정일 : 2021. 07. 07.

| Abstract |

The Reception of the Japanese drifting at Busan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The Joseon Diary of the Drifting* (1819)-

Shim, Min-Jung

This study focused on *The Joseon Diary of the Drifting* (1819) on how Japanese people with ranks in the late Joseon Drift received reception in Busan. The following is a brief summary of what kind of reception the drifting Japanese received in Busan.

All of Yasuda passed through Gyeongsang-Udo and arrived in Busan. For this reason, the drifters went through or stayed at the port of 'Gadeok Island - Dadae - Busan - Uam' in Busan. These people stayed for a month after receiving basic research at Dadae Port. Also, at Uam Port, these people stayed until they returned to Japan and received various receptions.

Yasuda was an intermediate warrior. So, Yasuda gave the reception more preferential treatment than ordinary drifters.

When sending drifters to Japan, a separate tent was installed at the Uam port to handle the business. At this time, the officials of the Tsushima Islands, Gwansu, Jaepanwae, and Daegwan, moved overland and went to Uam Port with a large number of personnel. They joined together in a party to receive the drifters. At this time, Yasuda tried to follow Japanese etiquette rather than Joseon's etiquette.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know in detail how the Japanese adrift was received in Busan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 Words : *The Joseon Diary of the Drifting* (1819), the Drifting Japanese, The Reception of the Drifting Japanese, The reception foods, Dadae Port in Busan, Uam Port in Busan.